



문화매일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주재

民·官·軍 함께 국방혁신 핵심 안전에 머리 맞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전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전들은 우리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편안) 자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합동군사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 무인기 침투('22.12.26.),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참모의장은 ▲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편안) 자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23.2~5월)를 운영해 우리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중

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했으며, 기계계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는데, 위원들은 핵심 안전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 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판규·이건환·정영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환·이승섭·정영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열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고,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청, 나눔으로 더위나기'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북도·공동모금회, 폭염 대비 취약계층 5천 가구에 총 5억원 지원

도움의 손길이 모여 저소득층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응원

경북도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모금한 5억원을 기탁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 5천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냉방비 지원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한 '우리경북, 일상회복 착!착! 착!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재원이 마련됐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5천 가구에 가구별 10만원씩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이하 계층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냉방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수혜자 선정은 시군별 추천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경북, 일상회복 착!착! 착! 나눔캠페인'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7일간 진행했다.

1호 기부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시작으로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 출연기관, 기업 및 개인 기부자 등 안전한 여름 생활 지원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해 5억원의 성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냉방비 지원금이 폭염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염에 대비해 개인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고, 도민 모두 전기료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안양 등 10개 시군, 11일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마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27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안양시 등 10개 시군의 접수가 11일 우선 마감된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7개 시군 중 지난 6월 30일부터 처음으로 접수를 시작한 안양·파주·군포·오산·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연천 등 10개 시군의 접수가 8월 11일 일로 종료되고 9일 밝혔다.

각 시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실시해 8~9월 중 순차적으로 1차 지급(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시는 8월 18일, 의정부시는 8월 24일, 양주·과천시 8월 28일 마감되며 시흥·김포·하남은 9월 4일, 평택은 9월 5일, 이천은 9월 11일, 화성은 9월 12일 순차적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시군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구리·남양주·안산·광명·양평·가평·

부천 등 7개 시군은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8~9월 중 사업 공고와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7일 기준 예술인 기회소득의 신청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획 사업량 대비 89.6%로 높은 신청률을 보여 추가 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소지 시군의 접수 일정을 확인해 기한 내 꼭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 3,470 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각 75만 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9천여 명이 대상이다. 지난 6월 30일부터 시군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해 왔으며, 8~9월 중 1차 지급을 완료하고, 10월부터 2차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달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을 만나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는 기회소득의 첫 번째로 예술인들을 선정했다"라며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서울 중구문화재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3 청소년 영화캠프' 성황리에 마쳐

고 체험하며 자신의 미래 직업과 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기획부터 연출까지 영화의 실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전문적인 영상 제작 방법을 배우고, 미래 영상산업에 대한 비전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촬영 시나리오와 콘티, 대사를 구성하여 촬영을 전개해 3~5분 분량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완성된 작품은 오는 8월 19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공개 상영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3 청소년 영화캠프'에는 서울 중부권역(중구, 종로, 용산구, 성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3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앞서 중구문화재단이 관내 학생들의 미래역량 제고와 풍부한 교육자원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과 업무협약을 맺은 만큼, 서울 중부권역 소재 학교 재학생 및 거주 청소년에게

영화교육 활성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구문화재단은 이번 청소년 영화캠프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청소년 영화교육 학술 세미나 및 충무로영화제 사전 프로그램 등 영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구 관내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지역 문화예술을 함양하고 영화의 메카 충무로 지역의 문화 특색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원/기자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권력 점프를 위한 남다른 선택!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Who is the next?

원스톱투자지원단 운영

-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개월 내 원스톱 투자지원
- 15개 기관 투자지원협의회 > 중요사업 해결책 모색
- 30개 기관 340명 실무지원단 > 사안 발생 즉시 맞춤형 신속지원

원활한 인력수급

- 산·학협력: 39개 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인재양성: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원부품 분야 인재양성(RIS사업), 삼성전자-경북대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운영, 삼성전자-DG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 우수인력: 대구권 51개 대학 연간 7만명 인재 배출

최적의 투자 입지

- 대구경북혁신공항 및 첨단산단, 제2국가산단 등 건설
-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4개 국제공항
- 전국 모든 곳으로 열려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5대 미래산업 집중육성

UAM연계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하이닉스형 합성 UAM 기종 구축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모터, 배터리, 마이크로EV) 기업이 몰려드는 저용량수출선 허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기술 기반 특화된 산업 생태계 조성 D-FAB 센서 파운드리 구축 생체센서계 클러스터 조성(DGIST 센서융합연구소, 삼성·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로봇네트워크 구축 이동식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서비스로봇 실증 및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차원 헬스케어산업 전문구(메이커스퀘어)개발·실증, 전문인력 지원 의료산업 시범(관료제) 중점 지원 다차원 차세대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융합산업 디지털 혁신사업 조성 과기부 5대 협력프로젝트 추진 ABB생화학 등 운영

상당·문의 | 대구광역시 투자유치과 · 반도체, 헬스케어, ABB T. 053-803-3321-4 · 모빌리티, 로봇, 유동·물류 T. 053-803-6211-2, 3471-2

박영한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서울역광장의건전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지원' 조례제정안발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제정안 통과시, 건전한 서울역 광장의 초석 역할 기대

8일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역은 일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시내의 교통 중심지임에도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며 조례 목적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역광장을 정의·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건전

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역광장에서 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지원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역 광장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그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역사에 걸맞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역사 앞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최초의 철도역사광장 관련 조례안이다.

최광수/기자

전남도의회, 고수온·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 현장점검

강진 양식장 어망관리 등 사전대비부터 복구까지 분야별 선제 대응에 만전 당부

신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8일 태풍(제6호, 카눈) 북상으로 남해안 냉수대가 소멸함에 따라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업인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날 전복 양식장을 찾은 신의원 위원장은 양식어장 고수온 대응 추진 계획에 따라 액화산소 사전 공급, 양식 밀도 낮추기, 고수온 대응 장비 준비, 차단막 설치 등 양식장 관리 요령에 따른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이변과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복, 넙치 등 양식시설물과 수산생물에 대한 재해복구 단가는 수

년간 동결돼있다"고 지적하고 "실거래 가격의 50%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응반을 설치 운영하고 시군합동 현장 예찰 강화를 비롯해 고수온 대비 입식 신고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고수온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와 양식피해 현장에서 전복, 우럭 등 가두리양식장에 반복해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박종배/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공동주택 철근누락 사태 대책 마련 촉구

8일 긴급대책회의 열고 경남도 건축주택과로부터 현안보고 받아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한 도내 안전점검 상황을 보고 받고 경상남도에 철저한 점검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LH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상남도로부터 LH 발주 도내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아파트의 보강 추진현황 및 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안전점검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양산사송 LH아파트 보강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챙기라고 당부했다.

박해영 위원장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물론, 도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까지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관행적인 안

전불감증과 부실공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건설위 의원들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과 건설업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가 최근 붕괴사고를 야기했다고 진단하고 경남지역 내 부실시공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 의원은 "무량판 구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며 특히 건설현장 전반적인 문제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을 살피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관리관청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펼쳐야 하며 무너진 건축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권원만 의원은 "도내에서 실시하는 보강공사 및 점검현장에는 경상남도 공무원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전기풍 의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붕괴사고로 인해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커졌다"며 "건축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경남지역 내 전관업체 유무에 대한 실태파악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영수 의원은 국토부나 LH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도민의 복리와 관계된 경우 경남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권한 이양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도 의원은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2013년 이전 준공 아파트 대상 안전점검도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의원은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업체 이권 카르텔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경재 의원은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도내 민간 발주 무량판 아파트 27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재현/기자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 시급

전주 삼천동 주민 간담회,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안정성 긴급 점검 회의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주시 삼천동 주민 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7일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의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LH사태까지 발생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주 운영,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을 공개했다. 또 오산시의 아파트는 보강 철근 필요 기동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누락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과 슬래브 접합면에 보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



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설상희 과장은 "2017년 이후 시군형 도내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13~16년 민간발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을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열 의원은 "무량판 구조 철근 일부 누락 등으로 광주 아이파크-인천 검단 LH아파트 같은 붕괴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철저하고 과학적이며 안전을 최우선한 보강 공법으로 도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술/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배식 봉사 펼쳐



연이은 무더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광주광역시의회는 8일,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남구 노대동)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배식 봉사에는 이귀순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5명과 고병일광주은행장, 광주은행 홍보대사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광주은행은 노인건강타운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과일, 음료수, 부채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김용덕 본부

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귀순 부의장은 "오늘 배식 봉사활동을 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노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김병창 대표의원·김화숙 의원·김주영 의원·전규호 의원·이재원 의원·김병기 의원·유충상 의원·손성호 의원)은 8월 9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의회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는 기존 영주시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 수요에 부합하는 축제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3개월여간 진행되어 온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축제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 ▲현

행 축제 조사 분석 ▲영주시 지역맞춤형 문화축제 개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각 축제들이 가진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병창 대표의원은 "앞으로 축제 평가 및 신규 기획을 위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여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 영주형 관광전략을 개발하여 이 전략에 따른 축제 개발 기획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우리는 관광 및 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광 고: 1899.9659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킵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부서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문수훈 대외협력관, 철도교통과 기우순교통정책팀장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보행자 안전성 제고를 위해 LED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에 설치하여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철도교통과 관계자와 논의했다.

아울러 관양2동 내에 있는 향기어린이공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추가예산 확보, 학의천 퇴적도 준설,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관련하여 예산법무과 문수훈 대외협력관과 도비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인해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의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김옥순 의원, 학교급식보건과와 정담회 개최...급식비 단가 인상 요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목)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정담회를 갖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는 유치원 3,160원, 초등학교 3,580원, 중학교 4,310원, 고등학교 4,7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으로 인한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유치원·초등학교 5,410원, 중학교·고등학교 5,950원으로 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전기비·수도비·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잇따라 인상되고, 식재료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 현재의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높았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옥순 의원은 "현재 책정된 학교급식경비 단가는 급등한 식재료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고, "낮은 급식단가로 인해 영양이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

식시킬 수 있도록 물가상승을 반영한 학교급식경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서울·인천의 지원 단가에 비해 경기도는 300~500원 정도 단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위탁급식업체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단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태희 급식관리담당 사무관은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인상으로 학교가 현재의 급식비로는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학기 학교급식경비를 식품비 4%, 운영비 18%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학기 학교급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사무관은 "위탁급식 지원 단가 또한 식품비 4% 인상분을 반영해 유치원·초등학교 5,640원, 중학교·고등학교 6,180원으로 인상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전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현실을 반영한 학교급식경비 단가 편성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문승호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7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리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은 "학교나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자파 방출이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설치된 곳과 아닌곳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으며,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년 50% 이상의 전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은 "다수의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시설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달 수리·점검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저탄소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대책으로써 좋은 모델이고 전국적인 전력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동동하하> 진행

체험·교육, 공연, 강연 다채로운 여름 행사 선보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2023 여름방학 프로그램 <동동하하(冬冬夏夏)>를 진행한다.

<동동하하>는 경기도박물관이 겨울과 여름의 방학 때마다 진행하는 대표적인 교육·체험 행사인데, 올해는 특히 광복절을 앞두고 다채로운 공연, 강연 및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다양한 상설전·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상설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상설전시실을 AR 게임방식으로 관람하는 '경기 천년 시간 수호대', 체험키트를 조립하여 경기도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알아보는 '뮤지엄아트: 내 손안의 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은 7월 26일 개막한 6.25 전쟁 정전 70주년 특별전 <두 얼굴의 평화, DMZ>와 연계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 해설을 진행하며, 기획전시실에서 태플릿 PC를 이용해 'DMZ 메타버스: 사라진 마을' 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11일에는 국가보훈부 경기동부지원청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광복절 기념행사 '2023 독립페스타'를 개최한다. 페이스 페이팅, 캘리그래피, 독립군 체험과 영화, 강연, 버스킹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또한 8월 12일 오후 1시~5시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경기문화재단 온라인 고객 서비스 지지멤버스와 카카오톡 친구채널 추가 고객 대상으로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과 꾸미기, 기념품 증정 등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다.

8월 13일에는 문화예술 분야 일제잔재를 청산하고자 기획한 '2023 경기인문콘서트'를 개최한다. 호사가 유지 교수의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독도와 한일 관계' 강연과 퓨전국악 그룹 '아리수'의 공연이 함께 열린다.

그 밖에 조선시대 관복에 들어가던 흉배 무늬를 이용한 '천연소재 부채 만들기'와 박물관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수호대'와 '인스타그램 팔로잉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설전,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현장 접수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는 오는 7일부터 지지멤버스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박물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많은 관람객이 여름방학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정동혁 의원, 화정지역 공원의 통합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활용도 향상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4일 고양상담소에서 화정지역 공원 환경개선사업의 통합적인 기획과 철저한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양시 덕양공원관리과장과 공원관리팀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은빛공원, 화수공원, 달빛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정동혁 의원은 진달래공원의 경우 지난해 공사가 진행된 곳인데 물이 고이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덕양공원관리과장은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전

체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공원도 있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며 공원 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것이며, 진달래어린이공원의 경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시 지대가 낮아져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대한 이 시설의 기능도 살리고 배수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진달래어린이공원의 경우 배수 후 흙이나 자갈 등이 남지 않도록 물막이 설치 등의 방안과 공원 조성 시 공원마다 특색있는 테마를 적용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한 화정지역의 낡고 오래된 공원을 새롭고 젊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화정



지역 공원들을 바꿔나가는 사업에 매진할 것이며, 특별조정기부금 확보를 통해 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박명수 의원, 안성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정담회를 열고 안성시의 수질개선 등 물관리와 관련된 사업 확대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안성시 하수시설팀장과 하수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물이용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다.

안성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죽면 전체, 삼죽면 5개리, 죽산면 7개리 등 3개면 27개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기금 배분액을 살펴보면 이천시 268억원, 여주시 242억원, 하남시 80억원 등에 비해 안성시는 21억원으로 한강수계 상류지역임에도 수질개선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액이 적은 상황이다.

박명수 의원은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안성시 동부권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정작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안성시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미천과 죽산천 등 주요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발굴해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도 안성시가 참여하는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2023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올해 을지연습 8월 21~24일 진행, 총 21개 반 576명 운영

수원시는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실·국·소장, 발달구청장 등 공직자와 제2819부대 3대대,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수원남부소방서, 수원구치소, 수원보호관찰소, 한전경기본부, KT수원지사, 삼천리도시가스, 삼성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되고, 16~18일에는 위기관리 연습을 한다. 수원시와 유관기관에서 총 21개 반

576명(1일 144명)이 연습에 참여한다.

수원시는 이날 준비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16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후 21일에는 공무원 비상 소집을 발령하고, 을지연습 최초상황을 보고한다. 22~24일 일일상황보고회를 하고, 22~23일에는 을지연습 토의형 연습과제를 토의한다. 22일에는 발달구청 주관으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하고, 23일 민방위훈련을 한다.

을지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비상대훈련이다. 전시 전환 절차 훈련, 도상 연습, 토의형 연습, 피해복구 실제 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중앙부처·지자체 전 공무원, 중

점관리대상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적극적으로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각종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대응 능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안보상황 급변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는 전시 대비 훈련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토지 경계분쟁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성남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수정구 사송3지구 140필지(약10만㎡), 중원구 성남1지구 118필지(약20만㎡), 분당구 백현지구 185필지(약20만㎡)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확정 예정토지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각 구에서는 지구별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경계

설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 계획이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 전체 사업대상 1만 5173필지(1445만㎡) 중 29개 지구 7107필지(842만㎡)를 디지털 지적으로 완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간의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범상/기자



고양 마두도서관, 향토문화 기획전시 운영

8. 10. ~ 9. 20. '문학과 영화에서 만난 나의 고양'

고양특례시 마두도서관이 오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향토문화자료실(3층)에서 향토문화 기획전시'문학과 영화에서 만난 나의 고양'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 7월 마두도서관 이용자들이 추천한 '고양시'가 등장하는 문학 및 영화·드라마 중 30여개의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다.

고양시는 다양한 예술 문화 작품에 등장했다. 정발산역과 대화역이 각각 소설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오빠 강민호'와 웹툰 '신과함께-저승편'에 등장했다. 영화 '부산행'은 행선역 승강장에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세트장에서 촬영됐다.

또한 드라마 '드림하이'에는 중미문화원과 웹툰 등이 배경으로 나왔으며, '아홉수 소년은' 한빛도서관 자료실 내부가 나온다. 또한 최근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이해'는 주인공의 대화 장면이 흥국사에서 촬영됐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고양시의 여러 장소를 다양한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기/기자



2023 고양향토문화 특성화 시민참여 전시

영화와 문학에서 만난 나의 고양



전시기간 2023. 8. 10.(목) ~ 9.20.(수)

전시장소 마두도서관 3층 향토문화자료실

전시내용 '고양시'가 등장하는 문학 및 영화, 드라마 등 시민들이 추천한 작품 30여점 전시



화성시의회, 제8회 화성시장배 전국론볼대회 및 장지체육공원 론볼장 전천후 시설 완공식 참석



제8회 화성시장배 전국론볼대회 및 장

지체육공원 론볼장 전천후 시설 완공식이 급일 8일 장지동에 위치한 장지체육공원 론볼장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운·김상균·김영수·배정수·전성균 의원이 참석하여 선수 및 시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의장은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

를 갖추어 경기하는 론볼이 스포츠맨십의 큰 의미를 보여주는 스포츠"라며, "론볼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운의원은 "론볼의 저변확대와 많은사람들이 건강하게 론볼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 대회는 화성시장배인체체육회, 화

성시장배인론볼연맹에서 주최·주관하고 화성시와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의 후원으로, 화성시 선수 9명을 포함한 총 200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8월8일부터 8월9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완공식을 한 장지체육공원론볼장은 연면적 2,304㎡에 2022년 7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여의 공사끝에 완공됐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소상공인 현안 진단과 대응 방안

인천연구원,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 방향 마련” 연구 결과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근)은 2023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 방향 마련”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대 소상공인과 제조업 창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극화되고, 정보화 지원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주요 정책현안으로 짚고 있다.

20대의 소상공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준비사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제조업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미하여, 소상공인을 포함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또한, 코로나 이후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인천시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큰 것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전후에 꾸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창업 교육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 및 적응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창업과 폐업 등의 단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분야의 지원을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대기업 영향력과 대형 유통자본의 진입으로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건비, 전통시장, 정책금융 등 지원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확대보다는 영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서히 정착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군·구별 사업이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정책의 총괄 시스템이 부재하여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이 제안됐으며, 이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결과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버스 이용시 분기별 최대 4만원...10월 4일부터 교통카드 발급 접수

안양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4만 원, 연간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안양농업협동조합, 안양축산농업협동조합,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로카모빌리티(주)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 및 5개 기관 대표는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사항에 서명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이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시내·광역버스를 이용

하는 경우 교통비를 정산·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교통비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최대 4만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16만원이다.

안양시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환급된다.

시는 10월 4일부터 관내 농협은행 등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집중 발급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는 편의점 또는 ATM 기기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신우용/기자



안산시, 자율 방법·로보캡 합심... '묻지마 범죄' 총력 대응

이민근 시장, 시민 안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막기 위해 정책 역량 총동원

안산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업무 협업 점검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지역 자율방범대와 로보캡순찰대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산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420여 명의 로보캡순찰대와 1,430여 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안산시 자율방범대와 로보캡 대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직접 지키는 마음으로 다중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순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존 순찰 시간 외 주말 시간에도 추가 근무조를 편성해 순찰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묻지마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순찰 활동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정보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과 24시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범행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른 시민 불안 증가와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연일 묻지마 살인 예고가 폭염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행해지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와 로보캡순찰대가 함께 강력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용인특례시, '쓰레기 몸살' 국·공유지가 널찍한 주차장 변신

신갈동 송수관로 매립지 정비해 '차량 90대' 공영주차시설로 ... 8일 수자원공사와 협약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기흥구 신갈동 일원 국·공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변신한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날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

지사와의 협약을 맺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송수관로 등이 매립돼있는 수도용지 1619㎡와 하천용지 413㎡ 등 총 2032㎡ 규모로 환경부와 시가 소유한 토지다. 이번 협약은 이곳이 불법 경작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에 시민 편의 공간 조성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있는 이곳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노상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는 2억1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총 9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임시(노상)공영2주차장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신갈동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면서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지 발굴을 통해 주차난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시흥시의회, 호우피해 수재의연금 전달로 아픈 마음 함께해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며 호우피해 수재민과 아픈 마음을 함께했다.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번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시흥시의회는 성금 180만 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구호활동 및 복구, 일상 회복을 위한 위로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수해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작은 금액이지만 호우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부천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개최

부천시 장기발전 방향 및 도시 미래상 제시 등 종합적 계획 수립



부천시는 지난 8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이 된다. 시는 그동안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미래상, 계획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인구계획을 포함한 부문별계획 등 시의 정책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부천시 미래에 대해 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용규 중앙대학교 교수, 유재득 홍익대학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박순희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계획단 활동 결과와 시장계획을 고려해 도시미래상을

'꿈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되는 스마트 녹색도시 부천'으로 제시했다. 각종 개발 여건과 광역인프라 입지 등을 고려한 1도심, 3부도심, 3지구중심의 공간구조 설정과 함께 춘의-대장, 중-상동, 부천-소사 3개 생활권으로 개편하는 등 부천시가 서남부 중심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부천시 미래 100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8월 14일까지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시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하남시, RFID 종량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하남시는 이달부터 관내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별 전자태그(RFID) 종량기 지원 사업을 정식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공동 수거 용기에 배출해 수수료가 균등 부과하고 있지만, 전자태그(RFID)방식은 세대별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량 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는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처리 수수료 균등 부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미관 개선 ▲악취 저감효과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4월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공고 했고,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달 미사지구 4곳, 위례-감일지구 5곳, 원도심 4곳 등 총 13개 단지(총 9,422세대)에 전자태그(RFID)방식 종량기 161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종량기 108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단지지를 추가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 감량효과와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해 전자태그(RFID)방식 종량기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성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외국인 대원 적극 지원

유럽 5개국 100여 대원 안성 체류·숙소·의료·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안성시가 지난 8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안성을 찾은 외국인 대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유태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잼버리 체류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행정과 통역, 보건·의료,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럽 5개국, 100여 명에 이르는 잼버리 대원들은 안성에 도착해 오는 11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며 관내 기업 연수원과 교육원 등으로 나눠 숙소가 제공됐고, 행정력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등 각종 필요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학교 봉사자 및 시청 공무

원들의 협조를 통한 외국인 통역 지원은 물론, 보건 및 의료 지원을 이어가며 외국인 대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성의 자랑인 남사당 풍물공연을 비롯해 지역 명소와 문화·예술체험, 인근 기업체 견학 등 안성의 매력과 특색이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보라 시장은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잼버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에서 따스한 정은 물론,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갖게 무사히 돌아갈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전남도 정책고문에 구충곤 전 화순군수

바이오·백신산업 획기적 발전 주역...도-시군 가교역할 기대



전라남도는 8일 구충곤 전 화순군수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했다. 신임 구충곤 정책고문은 제8대 전남도의원, 제6대 도립대 총장, 민선 6~7기 화순군수를 역임하는 등 교육계, 정관계에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화순군수 재임 시절 '화순 사는 자부심', '신경제 1번지 화순'이라는 구호로 지역 미래발전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구체적 성과로 ▲바이오 및 백신산업 분야 국책사업 국비 총 3천790여억원 확보 ▲화순적벽 명소화, 세계 거석 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 거석문화 거점 조성 ▲전남 최초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광주·전남 최초 3대 무상교육(급식·교육·체육복)

시행 등이다. 구충곤 고문은 지난 6월 탄광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에 사회적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기고를 발표하는 등 퇴임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위촉장을 수여하며 "광주 근교권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지"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테니 고문께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충곤 고문은 "현장을 찾다니며 보고 들은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중배/기자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 상황 점검

남원시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최했던 종합추진계획 보고회의 내용을 발전시켜 이번 보고회에서는 행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행사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남원시는 이번 보고회 과정에서 나온 부서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청취했으며 행사지원, 홍보, 시설점검, 숙식지원, 의료지원, 안전관리, 교통대책 등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 사항들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토론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드론엑스포 TF팀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나온 안전건과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행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해외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또한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도 함께 개최하여 남원시의 드론산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며, 드론공연 남원 페스티벌, 체험행사, 드론쇼, 축하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태풍 '카눈' 북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임시 휴장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9일 18시부터 10일 13시까지 임시 휴장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관람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9일 18시부터 10일 13시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카눈'은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강풍과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조직위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전체 임시 휴장을 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가든스테이 실랑계는 9일 숙박 예약을 취소, 사전 예약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이며, 정원드림호 역시 휴장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오천그린광장에 조성된 워터 아일랜드 역시 이용이 불가하다.

현재 박람회장 내 수변부와 언덕 사면 등 재난 취약지 전 구간에 대해 조직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안전요원 60여 명이 현장 안

전 조치에 나섰다. 강풍에 대비해 그늘막과 간판, 컨테이너, 수목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토사 유실 여부 점검은 물론 우수관로 이물질 제거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다.

특히 9일에는 조직위 전 직원 비상근무 시행으로, 크고 작은 피해 발생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박람회장 휴장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관규 이사장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박람회장 내·외부 시설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준/기자

박람회장 임시 휴장 안내

8. 9.(수) 18:00 ~ 8. 10.(목) 13:00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해 임시 휴장합니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휴장 구역 :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전체

■ 문의처 : 박람회 콜센터 061-749-8000

※ 오전워터아일랜드, 정원드림호 등 이용 불가 ※

※ 기상 상황에 따라 휴장 연장될 수 있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마련 박차

산림청·전라남도·완도군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지난 7일 개최됐다. 착수보고회에는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용역사, 자문단까지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형식적인 보고회를 탈피하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기본계획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 격인 기본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의 성패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자문단 모두 신중하게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으며, 용역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의 기조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다", "지역의 향토 문화가 반영된 특색 있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완도군을 찾을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해 달라"면서, "완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우리군이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꼭 성공을 거둬야 하므로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인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한 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다.

특히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은 별도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 사항들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수목원 개원 시 연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1조 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영용/기자



함평군,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관내 어르신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 실시



전남 함평군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붙였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경로당 전기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내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난 8일 긴급 추가 지원했다.

추가 지원되는 냉방비는 총 2개월분으로 무더위 심터로 활용중인 관내 경로당 375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했다.

아울러 군은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과 경로당 시설도 점검하는 등 여름철 폭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중수 함평군 가축행복과장은 "폭염이 계속되는 올 여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작년 11만5천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 12만5천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8월에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폭염취약계층 건강 돌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호평

홀몸 노인, 장애인 등 3700여가구 집중 모니터링 ... 폭염 응급키트 배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복지행정으로 감동을 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27일 발효된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홀몸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폭염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714가구다.

지역별 방문간호사 8명이 가정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혈압·혈당 검사, 만성질환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행동 지침,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냉방시설이 없고 외딴곳에 거주

하는 홀몸 노인 등 1386가구를 폭염 위험군으로 분류해 9월까지 방문과 전화, 문자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한다.

여기에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쿨패치, 부채, 식염 포도당, 의약품 등 9종으로 구성된 폭염 응급키트를 배부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위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나트륨을 비롯



한 많은 이온이 신체 외부로 빠져 나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소금물이나 이온음료로 수분, 나트륨 등 체내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일상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폭염 대비 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취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야외작업 및 외출 자제하기' 등이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취약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이나 영농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상황 점검 및 사전대비 철저 지시

철저한 상황 관리로 태풍 사전대비 및 점검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

전북도는 오늘 8일 9시와 15시 두 차례 태풍 '카눈'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별 대처 상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태풍 카눈은 8일 9시 중심기압 970hpa, 최대 풍속 35m/s 강풍반경 350k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북북동진하면서 3km/h 속도로 이동 중이며, 전북 지역은 9일 저녁부터~11일 새벽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번 태풍은 예상 강수량은 50~150mm 정도이고,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사태, 지반 침하, 침수 피해, 낙하 위험물 사고 등이 우려된다.

이에 임상규 부지사는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강풍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및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과 저지대 등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징후 예상 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실시 등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저지대와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위험시설에 대해 사전에 경찰과 합동으로 안전통제 강화와 강풍 및 풍랑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박 인양과 농작물시설 및 축사, 수산·양식시설 등에 대한 사전 결박과 간판 철거, 공사장 크레인 등 낙하 위험물 고정 제거 등 꼼꼼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예비 특보 단계부터 담당자를 현장 배치하여 특보 시 경찰과 합동 통제 실시와 도로변 빗물받이·맨홀에 대한 사전정소,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점검과 양수기 전진 배치를 주문했다

반지하 주택가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 등 재해 약자에 대해 조력자를 지정하고 방문 유선으로 상시 관리하여 선제적 대피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관광, 예경보 시설 및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기상정보 및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도·시군·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임 부지사는“이번 태풍은 강력 태풍으로 위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께서는 TV, 인터넷, 재난문자 등에 송출되는 태풍 시 행동요령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산사태·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 외출 자제와,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는 등 태풍 대비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국회 방문...내년 국비 확보 총력

“서삼석 예결위원장 면담,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 등 현안 사업 지원 요청”



강진원 강진군수가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청사 및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국방위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강화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미래차 부품 시범 제작 기반 구축)사업(103억 원) ▲강진만 폐류감소 피해보상 용역비(1억 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세대) 진입도로 개설사업(15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 구축사업은 기존 공법의 자동차 부품 제조 대비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부품 경량화에 따른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를 높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 생태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다.

군은 지난 해 11월, 6개 관련 업체와 성전산단으로의 이전을 협의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제작 생태계가 구축되면,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해당 부품의 전후방 가공, 도장, 후처리 작업 등에 지역 내 2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군이 목표로 하는 자동차 부품, 휠 산업은 기존 고급차량과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만 사용될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7년 대비 2025년에는 32.5%가 증가한 4조 5천억 원 규모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세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제8539부대 3대에 6개 군(강진, 장흥, 영암, 해남, 진도, 완도) 예비군훈련대 창설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연 25,000명의 교육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 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3일에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추윤호/기자

화순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공급

폭염 피해 농가, 취약 축종 농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우선지원



화순군은 폭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8월 중순까지 전국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비비 8,2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여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한다.

폭염 피해 농가, 폭염에 취약한 축종(닭, 오리, 돼지, 젖소)을 사육하는 농가, 중소 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순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가축들이 탈수, 탈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폭염에 취약한 축종별 소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사육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해 가축

에너지 공급 및 면역력 향상을 통한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전화 연락 및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비 가축 관리요령을 지속해 홍보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폭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폭염 피해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신안군 월 1만 원 임대주택 도시민들의 문의 쇄도

임대주택 모집공고 8월 시작

신안군은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월 1만 원 팰리스파크 연립임대주택은 총 27호로 이번엔 공급할 물량은 19호이며, 모집 기간은 8. 1.~18.까지이며, 신청조건은 신안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가 있으며, 무주택자이면 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만 원의 임대료와 연평별로 차등 임대료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일정대로 진행되면 8월에 모집과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안군으로 전입을 반드시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2년이며 1회 연장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안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에 취학 가능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임대주택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해읍에 소재한 임대주택은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구례군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김밥, 회, 육회, 밀면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남도도와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식재료의 입고 단계부터 보관, 조리, 최종 섭취 단계까지 영업장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식중독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휴대용 세균측정기(ATP)를 이용해 조리 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현장 지도를 통해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과 영업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2023년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제104회 전국체전 씨름경기, 피아골 단풍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구례군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국제 4-H회 회원, 4-H연합회 회원 교류 위해 장흥군 방문

4-H국제교환훈련 외국인 및 전남 초청가족 '장흥물축제 열정적인 참여'



국제 4-H회 회원 및 전라남도 4-H 홀스테이 가정 22명이 지난 8월 5일 장흥군 4-H연합회 초청으로 제16회 장남진 장흥물축제에 함께 참여하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 4-H회 회원이 전라남도 홀스테이 가정에 머물면서 한국의 농업농촌 문화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장흥군을 방문한 미국과 핀란드 국제 4-H회 회원들은 장남진 장흥 물축제에 참여하여 지역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한 모든 4-H가족들은 오후 물축제 행사 일정으로 주무대에서 열린 '지상 최대의 물싸움'에 참가하여 젊음의 열기를

발산했다. '수상 자전거 타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하며 더위를 한순간에 날리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장흥군청을 방문한 국제 4-H회원은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의 현대 속에서 직접 영어로 설명해준 지역 특산물과 우드랜드 등 지역명소 소개와 장남진 장흥물축제에 관한 내용을 듣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돋보였다.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어머니의 품 향에 오신 미국 등 외국과 국내 4-H가족을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장흥물축제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4-H회 모습과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칭찬도 함께 들려주었다.

박재원/기자

목포시,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총력

상황판단 회의 개최,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중점 논의

시는 지난 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피해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해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으며,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목포시에 최근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태풍세력이 강해 우리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점검하여 대비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 및 소관 시설별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 사전 점검, ▲강풍대비 낙하 위험물 고정·제거, ▲수산·해안시설 관리 철저,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비탈면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 ▲가로등, 신호등, 전기시설 감전 예방 ▲재난문자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한 태풍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시했다.



시는 태풍이 접근하기 전까지 도로 시설물, 방조제, 교량 등 시설 안전점검 및 해안가 등 저지대 침수대비 배수 펌프장 확인점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이번 태풍에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이 근접하면 시민여러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중배/기자

갑작스럽게 닥친 유례없는 폭우, 예천군 이렇게 대처했다!



발 빠른 응급 복구...철저한 항구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 투입할 것

김학동 예천군수, "최대한 사전 예방,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재난 현장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이번을 전회위복으로 삼아 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예천군에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예천군은 갑작스러운 유례없던 호우로 예천군 전 지역과 특히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 10여 개 마을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에도 전 행정력을 투입해 조속한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면서 수마의 흔적이 조금씩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다.

군은 지금과 같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앞으로는 더욱 자연재해가 더 잦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기회를 확실한 예방책 마련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으로 지난 3주간을 되돌아 왔다. ▲전 행정력 투입에 체계적인 행정 대응... 즉각적인 응급복구 추진, 군민과 상황 공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군은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처에 나섰다. 도로유실, 하천 범람지역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김학동 군수는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 피해업무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지시해 전 직원은 연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현장에서 우회도로 교통 통제와 주민대피/상황 전파 등 피해 최소화하고 2차 피해 방지, 긴급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을 펼쳤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 피해 및 복구상황을 군민과 공유했다. ▲주민 안전 최우선으로 이재민 지원...임시거주시설 운영, 심리지원, 방역 등 세심하게 살펴 피해 발생 당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고, 위험지역 주민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토록 적극 안내했다.

▲사유시설 응급 복구...수색 포함 경찰. 소방·군부대 23,312명 투입, 자원봉사자 9,214명 동원 손길 이어져 심각한 상황에 전국 각계각층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자원봉사에 나서 복구에 힘을 보탤다.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은 발 빠른 응급복구 완료와 사실 조사 후 경북도와 중앙부처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향후 항구 복구를 위한 피해지역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사유시설 응급 복구...수색 포함 경찰. 소방·군부대 23,312명 투입, 자원봉사자 9,214명 동원 손길 이어져 심각한 상황에 전국 각계각층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자원봉사에 나서 복구에 힘을 보탤다.

반)를 편성해 의료, 방역 및 심리지원과 함께 감염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세심하게 살폈다. 이후 이재민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거주시설을 경북도립대 미래관으로 이동 운영 하다가 지난 1일자로 운영을 종료했고, 현재는 마을 경로당 16개소에 51명이 대피 중이다. ▲실종자 수색작업 계속돼 피해가 발생한 지난 14일 이후 군부대·소방·경찰 등 인력과 드론, 헬기 등 장비를 투입해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도 실종자 수색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2명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향후 복구 계획...총 피해액 982억원, 공공시설 항구복구계획 수립, 사유시설 복구액 확정 후 신속 지급 피해조사 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예천지역 총피해액은 982억 원이다. 군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조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마무리했으며,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피해물량과 피해액에 대해 NDMS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경북도와 중앙합동조사반 현장확인 결과 도로 38건 43억 원, 하천·소하천 62건 511억 원, 상하수도 및 수리시설 31건 47억 원, 산사태·임도 42건 112억 원, 소규모시설(기타) 135건 114억 원으로 피해조사액은 827억 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피해지구별로 중앙부처에서 피해규모 확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부터 사업 우선순위 결정·협의 등으로 분류한 후 사업지구 조사 및 측량, 설계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유시설도 지난달 24일(29일 점검)부터 지난 6일까지 분청과 읍면 공직자를 최대한 동원해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를 마쳤다. NDMS에 입력한 결과 사유시설 피

복구와 수색을 위해 지난 7일 기준 경찰·소방·군부대 등 23,312명이 투입됐고, 자원봉사단체/사회단체·개인 등 142개 단체 9,214명, 경북도청, 대구/경산시 등 공무원 9,447명이 침수 농경지와 주택, 하천의 토사 정리, 부유물 제거 등에 나서 연인원 41,973명이 복구(수색)에 힘을 쏟았다. 군은 농작물 침수, 농경지 매몰(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지난 4일까지 피해접수를 받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완료했다.

▲향후 복구 계획...총 피해액 982억원, 공공시설 항구복구계획 수립, 사유시설 복구액 확정 후 신속 지급 피해조사 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예천지역 총피해액은 982억 원이다. 군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조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마무리했으며,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피해물량과 피해액에 대해 NDMS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경북도와 중앙합동조사반 현장확인 결과 도로 38건 43억 원, 하천·소하천 62건 511억 원, 상하수도 및 수리시설 31건 47억 원, 산사태·임도 42건 112억 원, 소규모시설(기타) 135건 114억 원으로 피해조사액은 827억 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피해지구별로 중앙부처에서 피해규모 확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부터 사업 우선순위 결정·협의 등으로 분류한 후 사업지구 조사 및 측량, 설계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유시설도 지난달 24일(29일 점검)부터 지난 6일까지 분청과 읍면 공직자를 최대한 동원해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를 마쳤다. NDMS에 입력한 결과 사유시설 피

해조사액은 총 155억 원으로, 주택 전파·유실 등 주택 피해 71동 27억 원, 농경지 침수·유실 등 213ha 75억 원, 농작물 도복·침수 772ha 26억 원 등으로 집계된다. 다만, 이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따른 잠정 집계로 최종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군은 기존에 자연 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마쳤고, 향후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을 중심으로 복구금액이 결정돼 교부되면 신속히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11동을 설치하고 각천면 별방리 2,400m² 부지를 조성하고, 지난 4일 임시주택 1호를 설치했다. 조만간 효자면 백석리에도 5동을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춰 설치하고, 이후 LH와 협회해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7월 폭우로 발생한 17명의 인명피해와 실종자 수색 중 안타깝게 사망한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자연재해의 엄중함과 경각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피해자 추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사항 건의...지원 제외 대상인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요청 예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가 지원되고 재정부담이 완화됐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항구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실제로 큰 피해가 있으나 자연재난 조사 구호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 지

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및 인공구조물, 보관 중인 수확물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어 중앙부처에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다시 반복돼선 안 될 일, 민관 협력 비상대피체계 확립, 철저한 항구 복구 추진과 대비책 마련 김학동 예천군수는 "가장 소중한 주민에게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일이기엔 일상을 찾기 위한 응급 복구가 완료되면 항구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민관 협력체제로 신속한 판단과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피체계를 확립하고 정보·대피, 구조구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 기후로 인해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또 어떤 재난이 닥칠지 예측이 힘들다."면서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이번 경험을 깊이 새기며 전회위복으로 삼아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청, 태풍 '카눈' 복상에 따른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경북도, 시군·경찰·경북옥외광고협회 등 민·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 위험징후 발견 시 신속한 사전 철거와 안전조치, 도민 안전에 최선



경북도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북상함에 따라 8~9일 양일간 불철수막 및 추락 등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특히, 경북도와 5개 시군(구미, 김천, 안동, 예천, 영주)은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중점 안

전점검을 실시했다. 교통신호등주 및 가로등주 등에 게첨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관내 정당에 협조요청을 통해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풍수에 대비 태풍특보 발효 단계별 대응 요령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위험징후 발견 시 사전 철거, 대형·노후 간판 설치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돌출·벽면간판의 추락, 전도, 파손 및 호우에 의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재해방재단의 지원으로 신속한 철거 및 안전조치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북 관내 및 우리나라를 벗어날 때까지 철저히 대비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상주시, 태풍 '카눈' 복상에 선제적 대응 돌입

강영석 상주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들 관심 가장 중요, 기상 예보에 귀 기울이고, 태풍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 당부

상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영석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여하여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복상에 따른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이 8일 발표한 태풍 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주 지역에는 9일에서 10일 사이에 강풍과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상주시는 회의에서의 논의에 따라 태풍 대비 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급경사·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과 하천둔치 산책로·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 현수막 사전 철거, 노후 옥외광고물 정비, 그늘막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으로 시민에게 행동 요령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주택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곳의 주민들은 사전에 파악하여 특보 발령 시 마을회관 등 안전지역으로 사전대피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태풍 영향권에 들기 이전에 각 부처와 읍면동에서는 주요 임무에 대한 과할 정도의 선제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조하였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상 예보에 귀 기

울며 주시고, 태풍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경북상인연합회, 호우 피해 복구 성금 보내

경북도에 1,000만원 성금 및 의류 200벌 전달, 이재민들에게 응원 보내...

경상북도상인연합회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9일 경북도와 경북공공도금회를 통해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경북상인연합회는 지난 7월 19일에도 이번 극한 호우의 큰 피해지역인 예천군 감천면을 방문하여 의류 200벌을 전달한 바 있다. 경상북도상인연합회는 도내 83개 전통시장 및 4개 상점가와 3만 명의 상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 창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동식 회장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중앙 정부에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정동식 경북상인연합회장은 "우리 전통시장도 지난해 태풍 한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많은 위리가 되었다"며, "상인들이 보편적인 손길을 통해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경상북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상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기재부 방문·국비예산 확보 '총력'

지난 9일, 서울지방조달청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 정부 차원 적극 지원 당부

이후 서울역서 전병극 문체부1차관과 오찬 간담회, 지역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주낙영 경주시장이 9일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주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 소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관련 국비지원 원을 건의했다. 주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SMR 혁신제조 기술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국내 SMR제조에 필요 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 시장은 '경주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과 관련, 경주의 세계유산에 대한 역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문화·교육·체험·편의시설이 부재한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성자 가속기 성능 확장사업(50억원) ▲문무대양면 안동처리분구 하수 관리정비 사업(14억원) ▲한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12억원) ▲경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68.6억원) ▲경주 양남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5억원) 등 17개 사업에 국비 1112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주 시장은 서울역으로 옮겨 전병극 문

화체육관광부1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 시장과 전 차관은 지역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먼저 주 시장은 ▲경주 예술창작소 조성(4억원) ▲해월 최시형선생 생가 터 복원(5억원) 등 6개 사업에 국비 총 42.1억원 지원과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청사, 국회, 대통령실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의 일정을 배려해 오찬 간담회로 가졌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건전 재정 운영 기조 유지와 세입 감소 등으로 사업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나겠다"며 "정부의 차기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각 분야별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최종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지역투자의 새지평 열 것!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첫 방문지로 경북 선택 김학홍 행정부지사, 지역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프로젝트 선도할 것



경북도는 보다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수도권 중심의 민간경제 활동무대의 지방이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공식화한 만큼 경북에서 선도 사례를 창출해 새로운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비수도권으로 민간투자를 유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다. 투자유도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출자해 민간의 비수도권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지역활성화 펀드의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직접 김천을 방문해 경북이 기획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펀드의 후보사업인 김천의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센터'와 문경의 '경북스튜디오'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은행 등 투자전문가 그룹의 컨설팅도 진행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신임 김완섭 2차관이 지역활성화 펀드 첫 번째 현장방문지로 경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경부터 전담팀을 꾸려 자체 기획을 진행 해왔고 사업의 구체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김 차관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비수도권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다양한 투자유치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투자유치 좌초 또는 규모 축소의 사례가 많았다.

이에 비해 지역활성화 펀드가 만들어지면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의 위험을 펀드가 낮춰 주어 투자 확률과 규모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이 매력에 느낄만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에 속제로 남겨져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충섭 김천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재정지원 방식인 만큼 민간이 매력에 느낄만한 프로젝트 기획력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면서 "도지사께서 민간자본 유치를 강조한 만큼 그 동안 추진된 정책사업들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한국산업인력공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박형준 시장,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더욱 면밀한 노동협력을 이어나가 이들 국가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할 것"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손을 잡는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유정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 이피에스

(EPS, 고용허가제) 컨퍼런스(2023 EPS Conference in Busan)' 부산 개최를 계기로,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및 홍보활동, 고용허가제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피에스(EPS, 고용허가제) 컨퍼런스'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교류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웨스틴조선호텔 등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정보교환, 업무수행과 ▲고용허가제 활성화와 확대방안 마련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2023 이피에스(EPS, 고용허가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16개 송출국 모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고 행사에 이들 국가의 주한대사 등이 참석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인권확보,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지난 오후 1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이피에스(EPS,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개최식에 참여, 축사를 통해 각국 대사들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지향 가치, 그리고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저력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시도 3일간 개최되는 컨퍼런스 일정 동안 참가자들이 해운대 등 부산의 주요 명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인 북항 일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였다.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부산시, 기업, 민간에서 원팀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송출국 간의 상호 유대 강화 및 증진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발굴, 인권증진, 산업현장 안전 등 지방정부로서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출발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더욱 면밀한 노동협력을 이어나감으로써 이들 국가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3개월 남은 최종 투표 전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해외 홍보와 유치 교섭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안동시, 상·하수도 대행업체와 상생 간담회 열어

맑은 물 공급·관리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한뜻 모아

김도선 맑은물사업본부장, "앞으로도 대행업체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깨끗한 물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명륜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상·하수도 대행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상·하수도 대행업체 대표 10여 명이 참석해 맑은 물 공급관리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휴일 및 야간 비상대기 근무 ▲재난 긴급상황에 대비한 연락체계 점검(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안전수칙 준수 및 교통통제 인력 확보 ▲긴급공사 시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공사 안내판 설치 및 현행화 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대행업체는 공공서비스 확대 추진 방안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선공사 무료 시공 ▲수해복구 성금 300만 원 기부 등 사회적 공헌 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맑은물사업본부는 2023년 7월 신설된

물 산업 정책 전담조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도행정 구현 ▲수돗물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 ▲민을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등을 목표로 안동시민을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도선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대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9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청송사랑화폐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한정된 재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취지'

윤경희 군수,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께 변경된 정부방침 적극적 협조" 당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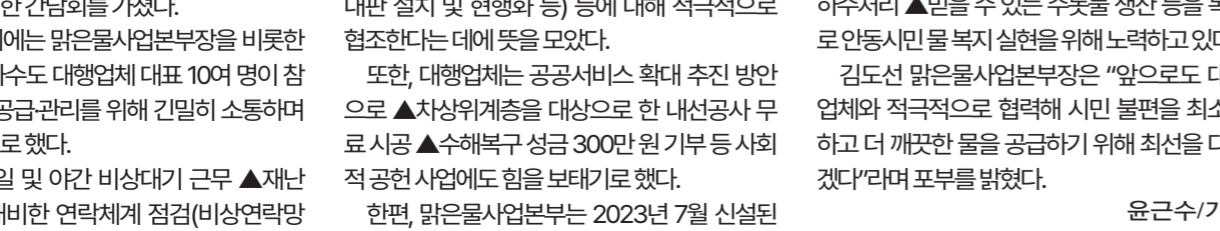
청송군은 오는 9월 1일(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 조건을 개편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 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군은 관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경제

사업장, 대형(식자재)마트와 같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 12개소를 선별해 지난달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취소 업체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9월 1일부터는 청송사랑화폐 취급이 제한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사용 가맹점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 소방, 태풍 대비 빈틈없는 준비 태세 강화

태풍 '카눈' 대비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개최
-도민 피해 없도록 선제적 대응... 대피명령 발동 시 즉시 대피 협조
-이영팔 소방본부장, "태풍으로 인해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최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복상에 대비해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북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경북 해안이나 북동 산지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9신고 폭주 대비 상황실 확대 운영 방안 ▲침수 등 피해 우려 지역 소방관서장 중심 순찰 및 현장 확인 ▲주민 대피를 위한 시·군·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방안 ▲피서객 피난 조치 ▲지하차도 및 지하 주차장 침수 대비 선제적 출입 통제 ▲출동장비 사전 점검 ▲119 특수 대응단 인명피해 예상 지역 사전 전진 배치 등을 집중 논의하고, 각 소방지휘관에게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장은 도민들에게 태풍 상륙 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지붕 등은 단단히 결박하고, 유리창은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게 창틀을 고정하며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일 것, 응급약품, 식수, 손전등 등 재난 대비용 생존 가방을 미리 준비하고 재난방송과 기상정보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 태풍 상륙 시에는 119 신고 전화가 폭주해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 문의 전화는 재난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태풍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태풍 상륙 시 외출을 자제하고, 긴급 상황에 따른 대피명령 발동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즉시 대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수확의 계절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봉화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한국 봉화군수, "일손부족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다행, 내년에도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봉화군은 지난 8일, 군민회관에서 베트남에서 입국한 1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입국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근로조건과 통역지원, 성실 근로자 2024년 재입국 등에 관한 교육과 함께 봉화경찰서에서 진행한 범죄 예방과 마약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봉화농협과 물야농협에서는 이들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급여통장 개설을 도와줬다. 한편, 하반기 봉화군에 입국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총 219명이다. 특히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 중 140여 명은 상반기 성실근로자로서 재입국을 하게 된다. 하반기에 입국하는 베트남 계절근로자는 고추와 사과 수확에 일손이 필요

한 54곳의 농가에 배정되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4명은 봉화농협에서 추진하는 공공형계절근로사업으로 고용되어 하루이틀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봉화군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을 대폭 확대해 상반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322명이 입국하며 농촌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농촌 인건비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박헌국 봉화군수는 "긴 장마기간 동안 수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이 깊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화), 청기면 쇠동구리권역센터 교육장에서 저리 논공 작목반 15명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을 개강했다. 이날 교육은 국내 콩 생산동향 및 우리콩 품종선택 등 콩 재배기술 중심으

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손창기 강사가 교육을 진행 하였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경북 농업대전환 농업비전 달성, 농업인 의식전환 및 역량강화, 가공유통 선도농업인 양성 등을 위해 병행교육, 농업회계교육, 농가경영 진단분석 교육 등 향후 5회 정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이윤철 소장은 "농업대전환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영양군에 우수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여 농지의 규모화와 토지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대구 남구청 한국미용장협회 대구지회 탄소중립 뷰티전시회 개최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한국미용장협회 대구지회의 탄소중립 뷰티전시회가 오는 10일까지 남구청 민원실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용장협회 대구지회가 "환경"이라는 포괄적 주제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22명의 미용장이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재활용한 헤어 작품 전시회이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 '0' (Zero)이 되는 개념으로 미용장들의 영업장에서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활용하여 창의성이 돋보이는 2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된 작품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섬세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지난 8일, 대구공업대학교 헤어과 학생들과 페용 및 소품을 활용한 헤어핀 만들기 생활 속 작은 탄소중립 실천 체험을 하는 등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재활용해 만든 헤어아트 작품들이 구민들에게 탄소 중립을 홍보하는 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미용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전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향 한국미용장협회 대구지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창의력이 빛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기자



의성군, 23년 상반기 신속집행 2년연속 최우수

김주수 의성군수, "2년 연속 전국 1위 쾌거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 정착 성과, 하반기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집행에 최선"



의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성군은 2년 연속 '최우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이번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수상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경상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 등 총 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제11회 경주시민원탁회의 토론회 참가자 모집

경주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내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주시가 보행친화환경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11회 경주시민원탁회의의 참가자 100명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주시민원탁회의는 '우리가 만드는 길고 싶은 경주'라는 주제로 다음달 14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보행자 우선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황리단길 1.91km 구간 인도 설치와 일방통행 지정을 골자로 한 보행친화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이는 대신 인도를 개설했는데, 사업 전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있던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명확해져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윤태용/기자

경주시는 황리단길 보행친화환경개선사업의 성과를 계기로 보행친화형 교통신호체계, 전선 지중화 등 보행자우선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경주시민원탁회의는 보행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토론자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방문(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전화로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우선인 길고 좋고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주시민원탁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고등학교서 초청 강연

'나의 성장노트(익산시장 정헌율의 성장기록)' 주제, 학생 240여명 참여

정헌율 익산시장이 9일 익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전하는 강연을 했다. 익산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정 시장은 '나의 성장노트(부제 익산시장 정

헌율의 성장기록)'라는 주제로 자신의 청소년기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내며 스스로를 다지고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젊

은 시기에 가져야 할 인생관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청소년기엔 무작정 달리기보다 자신만의 나침반을 세우는 시기"라며,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라 그 위에 타고 달리는 기수

충북도 최초, 청주 오창에 민간투자형 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2028년까지 구축

2028년까지 7,520억원 투자, 연면적 43,200㎡(1.3만평)규모 운영

지난 7월 17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주)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SPC), 마이크로소프트, (주)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서오창테크노밸리 내 민간투자형 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등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투자형 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충북테크노파크간 협업을 통한 신사업 분야 기업육성, 지역의 인재양성,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하는 것을 하고 있다.

(주)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 및 신(新)부가가치 창출, 클라우드센터 연계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

로 보고 있다.

특히, (주)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지역 산업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최신 기술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 미(美) 본사 최고기술경영자인 데이브 슬로안은 "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북 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로 신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주)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이준용 대표이사는 "충북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국 상위권에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센터 연계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충북 경제발전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1년 차에 35조가 넘는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며 "이번 (주)충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은 2년 차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제조

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피보팅의 첫 사례로 세계적인 디지털시대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통해 충북의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오늘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샘플 공개

FMS 2023'에서 개발 현황 알려... 300단 이상 낸드로는 세계 최고
PCIe 5세대, UFS 4.0 등 차세대 낸드 솔루션 제품도 소개해
"AI 시대가 요구하는 고성능 낸드 개발을 위해 지속 혁신할 것"

SK하이닉스가 '321단 4D 낸드' 샘플을 공개하며 업계 최초로 300단 이상 낸드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공식화했다.

SK하이닉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플래시 메모리 서밋(Flash Memory Summit, FMS) 2023'*에서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플래시 개발 경과를 발표하고 개발 단계의 샘플을 전시했다.

* 플래시 메모리 서밋(Flash Memory Summit, FMS):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낸드플래시 업계 세계 최대 규모 컨퍼런스(Conference)

*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는데 따라 SLC(Single Level Cell, 1개)-MLC(Multi Level Cell, 2개)-TLC(Triple Level Cell, 3개)-QLC(Quadruple Level Cell, 4개)-PLC(Penta Level Cell, 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음

메모리 업계에서 300단 이상 낸드의 구체적인 개발 경과를 공개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회사는 321단 낸드의 완성도를 높여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양산중인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321단 낸드 개발을 손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적층 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해 SK하이닉스가 300단대 낸드 시대를 열고 시장을 주

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21단 1Tb TLC 낸드는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기가비트) 대비 생산성이 59% 높아졌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더 높은 단수로 적층, 한 개의 칩으로 더 큰 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용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메모리 시장은 챗(Chat)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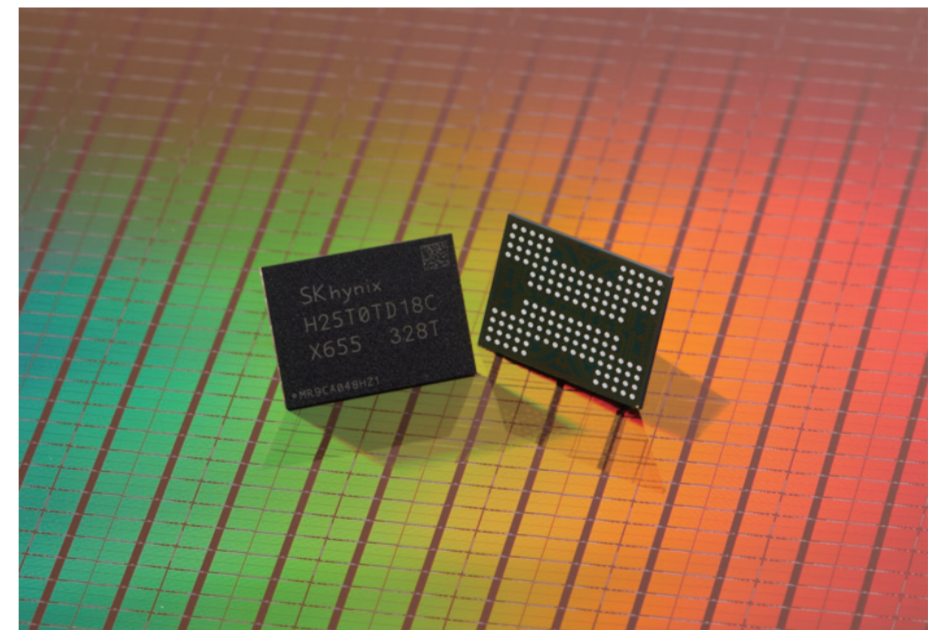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수요에 최적화된 차세대 낸드 솔루션 제품인 PCIe 5세대(Gen5)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기업용 SSD(Enterprise SSD, eSSD)와 UFS 4.0도 이번 행사에서 소개했다.

회사는 이 제품들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해 고성능을 강조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번 제품들을 통해 진일보한 회사의 자체 솔루션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인 PCIe 6세대와 UFS 5.0 개발에 착수한 사실을 알리며, 업계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SK하이닉스 최정달 부사장(NAND 개발담당)은 행사 기조연설에서 "당사는 4D 낸드 5세대 321단 제품을 개발해 낸드 기술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고성능, 고용량 낸드를 시장에 주도적으로 선보이며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거창군-대구 삼일병원, 응급의료 협약 체결

거창에서 40분, 야간 응급의료환자 수술 등으로 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기대



거창군은 8일 대구 삼일병원 10층 세미나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보건소 관계자, 김지건 대구 삼일병원 병원장과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삼일병원과 응급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거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삼일병원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거창에서 40분 거리에 있고, 전문의 36명의 의료인력과 지역응급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일병원은 소화기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심혈관센터, 소아청소년·여성백신센터, 관절의상센터, 뇌혈관척추재활센터,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9개 센터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외과와 신경외과 등 24시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외과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 가톨릭대, 동산병원 등 3차 병원에 응급수술 환자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연일 보도되는 등 국가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삼일병원과의 응급의료 협약 체결은 거창군내 야간시간대 응급진료 가능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환자 과밀화를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사항에는 거창군 응급환자 후송 및 회송체계 구축, 퇴원환자 중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또는 치매환자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이용 안내 협조,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병원으로 삼일병원 추가 지정, 병원 급식소에 거창군 농산물 이용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건 대구 삼일병원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거창군과 응급의료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창군이 믿어주시는 만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의 의료장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협약을 체결해 주신 삼일병원 김지건 병원장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 체결로 삼일병원이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종합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8월 말 관내 응급의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협약 내용을 알려 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2023. 8. 8. (화) ~ 8. 11. (금)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울릉군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태풍 '카눈' 북상 대비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 참석 후 시군 부단체장 회의 긴급 개최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한반도 전역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 고조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15시 태풍 대비상황 긴급 점검을 위한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가 개최됐다. 본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중앙정부 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

통령은 태풍 대비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 위험지역의 선제적 통제 조치와 신속한 대피, 그리고 신속한 상황공유 3가지를 강조했다.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6만 여명에 달하는 재해관리지역의 전수점검과 279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간 재해 사고가 비관리지역에서 오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 시군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도내 모든 곳을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태풍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7월 13일 발생한 정선군도 대규모 산사태 발생시, 군 공무원이 사전에 감지하고 도로를 전면통제한 덕에 인명피해를 막았던 사례를 모범사례로 이야기하면서, "선 조치 후 보고를 기본 원칙으로 현장 대응을 하겠

며, 특히, 그간 자연재난 발생 시 관광객 피해가 75%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여 도내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우 예비특보 발효시 사전에 대피할 것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회의 종료 후 김 지사는 곧바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주재 회의의 중요사항을 전달하고 태풍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각 시군에서는 관리, 비관리지역 구별 말고 모든 구역이 관리지역이라는 책임감으로 행정력을 모두 동원 할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내일부터는 재해대책 2단계가 발령 예정이며, 가장 큰 영향권에 드는 10일 목요일에는 전 직원 동원 3단계 발령까지 검토 중이니 사전에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태풍 카눈, 갖가지 사례에 세심히 대응해야"

부서별 대처 상황 보고 회의...사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등 지시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과 관련 "갖가지 사례에 대비해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무탈한 저수량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염두에 둔 지시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총괄과 등 10개 실무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카눈'에 대한 부서별 대처 상황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 13~18일 장마 기간에 발생한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에 대한 보고와 함께, '카눈'에 대한 대비 및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350km 해상에서 시속 7km로 북진 중이며, 10일 오전 3시 서귀포 동쪽 170km 해상을 지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눈'의 중심기압은 7km/h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심 최대풍속 35m/s, 강풍 반경 350km로 관측된다. 아산시의 경우 10일 새벽부터 11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날 부서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사례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일일이 지적했다.

주요 지시 사항은 △태풍 영향 기간

중 공원과 둘레길·산책로 출입 금지 △관내 어선 결박 조치 △농어촌공사 협의 통해 저수지 여유고 확보 △저수지 등 위험지역 낚시행위 금지 △송악면 유류리 하천공사 현장 안전조치 및 임시교량 등 안전 점검 △침수 우려 지하차도 사전 차단 △강풍에 의한 산간 도로 고사목 전도 대책 수립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수방 자체 전진 배치 △읍면동 비상 연락망 구축 △낙과 예방을 위한 결속 △태풍 뒤 농작물 방제 활동 등이다.

박 시장은 "논에 물을 빼러 늦게 나온 사람이 비바람에 실족하거나, 도시권 맨홀이 열려 사람이 빠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갖가지 사례를 대비해 세심하게 사전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11~15일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신진조 썸머 페스티벌' 축제장을 가설해야 하는데 태풍에 직격당할까 걱정이다. 상황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과 소방, 농어촌공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태풍 특보 발효 시기는 10일 오전 6~12시 사이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시는 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위험지역 사전예찰에 돌입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태풍 피해 막는다" 총력 대응 체계 가동

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신속 사전통제·선제 주민 대피 실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도는 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카눈 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정부 점검회의에 이어 연 이날 회의에는 김태홍 지사와 실국원장이 참석하고,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각 시군청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회의는 기상 상황 및 전망 공유, 중점 관리사항 및 그동안 조치 상황 보고, 앞으로 대응 계획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은 9일 오후 9시부터 11일 새벽까지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도내 강수량은 80~200mm, 바람은 초속 20~3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위험 상황 홍보, 선제적 비상 대응 및 현장 상황 관리,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 지역 사전 통제

및 주민 대피를 중점 관리 사항으로 정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다.

또 대형 크레인, 간판·첨탑 등 낙하 위험물 고정·제거,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양식장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등 강풍·풍랑·해일 대비 안전 관리도 중점 사항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7일부터는 농축수산, 도로, 하천, 어항, 유원지, 산림, 건축물,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 관리 대상 지역·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는 기상 예비특보 발령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강우·강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해안가 저지대와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홍 지사는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비와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산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점검회의

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중 19개국 5218명이 오는 12일까지 도내 8개 시군에 체류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편안하게 머물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살피며, 치밀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다"라며 각 시군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김원호/기자

태백시, 제47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및 관악 대축제 개최

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제47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및 관악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치게 된다. 본 행사의 개막식은 12일 저녁 8시부터 태백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며, 육사군악대와 경희대윈드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개막식 전 저녁 7시에는 태백역에서 출발하여 중앙로, 문화광장을 잇는 구간에서 거리 퍼레이드도 진행된다. 퍼레이드에는 육사군악대, 코즈빅밴드, 태백농악대와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여름도시 태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태백 문화광장에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육사군악학교 군악대와 해병대군악대 등 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경연 대회는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행진곡과 자유곡 각각 1곡씩을 15분 동안 합주 경연으로 진행, 초등부·중등부·고등부(8월 10일~13일), 특별부·일반부(14~15일)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10일 오후 4시에 해병대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있다.

경연대회 결과 시상식은 15일 오후 5시 폐막식에서 진행되며, 부문별로 최우수상·금상·은상·동상을 수여한다. 각 부 최우수상 수상팀 중 최고 성적을 얻은 연주팀이 학생부 대상(교육부장관상), 특별부·일반부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게

된다. 또한 시상식 전 충남청년관악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모든 공연 및 경연의 관람은 전 좌석 무료입장으로 진행한다.

한편,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는 1976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부 관악합주단과 오케스트라단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명문 관악단과 유능한 관악인을 배출해 국내외에서 훌륭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특기 적성을 발굴하는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어 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태백시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은 '야외용 테이블'과 '2인용 집모양 벤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고자 주민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학생동에 설치 예정인 야외용 4인용 야외 테이블 2개와 2인용 집모양 벤치 3개는 학생동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5개월 동안 목공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다.

공모 접수는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동네 심터는 내 손으로' 원주시 학생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 시행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마을 공유 심터 제공

원주시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은 '야외용 테이블'과 '2인용 집모양 벤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고자 주민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학생동에 설치 예정인 야외용 4인용 야외 테이블 2개와 2인용 집모양 벤치 3개는 학생동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5개월 동안 목공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다.

공모 접수는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이며, 학생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SNS(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동 내 야외 테이블과 벤치 설치에 적합한 장소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학생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목공수업이 마무리되는 9월 중에 목공봉사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테이블과 벤치

는 발대식 당일 주민 공모로 선정된 장소에 설치된다.

정태영 센터장은 "이번 주민 공모는 테이블과 벤치를 활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점 장소를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며, "수강생들이 무더위 속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벤치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돼 동네 심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천안시, 디지-메디 실증 클러스터 혁신 로드맵 발표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기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천안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기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천안의 입지와 장점을 살려 대전(대덕 기초연구)과 충북(오송 신약개발)의 바이오산업을 충남과 연결하는 '초광역 메디바이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다.

용역을 수행한 오세훈 박사(KISTEP 선임연구위원)는 천안은 단국대학교 병원, 순천대학교 병원 등 상급종합

병원 2곳이 위치해 우수한 의료진이 집적돼 있고, 12개 대학과 풍부한 인력을 확보한 의료 신산업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로드맵 기반기구상은 2035년까지 새로운 미래의로 신산업 육성과 대전·오송 등과 연결된 중부권 대표 혁신구역 성장을 목표로 천안의 입지와 장점을 살린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기반 클러스터 ▲제조혁신역량 및 실증(Test-bed) 중심 클러스터 ▲도시형 혁신공간형 클러스터 조성 등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오픈 이노베이션 기

반 연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업단지 내 기업과의 협력시스템 조성 ▲실증-제조중심 천안 스타일의 비즈니스 실증 시설과 장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메디 산업 거점을 위한 도시형 혁신단지 조성을 담았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천안의 강점을 살려 디지털 의료, 첨단재생의료, 치의학 분야를 미래의로 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2023 대한민국관악대축제

제47회 The 47th National Brass Band Competition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2023년 대한민국관악대축제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1일(금), 12일(토), 13일(일), 14일(월), 15일(화)

장소 : 태백문화예술회관 및 야외특설무대 (연차서 무용무단)

주최 : 한국관악협회

주관 : 한국관악협회, 한국관악협회 태백시부

전남소방, 태풍 카눈 북상 대비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 확립



“인명·재산 피해 없게...사전 대비 최선 다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태풍 대응 인력·자원 총동원령

광주시·5개자치구, 태풍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

긴급소방지휘관회의 개최, 119신고 접수대 증설,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

전남소방본부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신속, 최대, 최고 대응태세를 확립했다.

8일 오후 홍영근 본부장 주재로 소방본부와 22개 시·군 소방서 서장 및 각과·팀장 등이 참석한 ‘긴급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태풍 예상 경로에 따른 기관별 긴급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으며 위험지역 15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도 점검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직원 활동 시 무리한 현장활동은 지양하고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인력 보강과 수방장비의 점검·정비 철저를 지시했다.

전남소방은 9일부터 22개 소방서장

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 산사태 지역 등 27개소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현장확인에 나선다.

상습침수 지역 등 557개소를 예찰활동 강화와 함께 태풍경로 상 최고 위험지역에 특수구조대를 전진 배치해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접수대를 30대에서 50대로 증설하고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 주민대피 운송 수단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홍영근 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최악의 상황에서 신속, 최대, 최고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광주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예보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오후 시청 총무실에서 태풍 대비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5개 자치구와 부서별 중점 관리사항 및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급경사지, 배수문, 하천진입로, 하수도 유입구, 옥외광고 게시대, 교통안전시설물, 저수지, 시설하우스, 건설 공사현장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긴급 사전점검을 하고 태풍 대비 안전조치를 했다.

태풍 북상 전까지 인·관·군·경이 함께하는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하철도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간부공무원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하

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 등산로,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기상 및 현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태풍 영향권 진입 전·후로 긴급 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빗물받이 5760개를 특별점검했다. 빗물받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지난 폭우에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만큼 이번 태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한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히 대비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지난 홍수 때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만큼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수/기자

태풍 ‘카눈’ 대비 부산 동구청, 동부경찰서, 부산진소방소 기관장들 한자리에 모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8월8일 태풍 ‘카눈’ 및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오동욱 동부경찰서장,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각 유관기관별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공유하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태풍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청에서는 그간 추진사항으로 기상특보시 주민대피, 지하차도 및 배수펌프장 일제점검, 장마기간 동안 피해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상특보시 지하철도 3개소 통제 지원, 동구관내 침수도로 통제 및 주민안전 확보, 긴급 주민대피차량 및 인력지원, 순찰시 재해우려지 발견시 즉시 통보 등의 요청을 했고, 동부경찰서에서는 재해우려

인명피해 제로 동구!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지 합동점검 추진, 112순찰 및 방법별 동 구에서 기관별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유관기관 재해담당 카톡방 개설을 요

청했다. 부산진소방서에서는 기상특보시 단계별 근무 보장 및 총력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명구조 외에 비긴급신고 건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각 기관에 이관시 적극 처리, 수중펌프 등 방재물품 요청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홍 구청장은 회의 전반을 주재하면서 ‘인명 피해 제로 동구’를 위해 각 기관 기능별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과 신속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의 눈높이에 충족하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당부했다.

송종진/기자

“안전 최우선” 대전 0시 축제 안전관리 총력 AI 선별관제시스템 첫 도입, 구역별 혼잡 분석·전파

대전시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준비를 마쳤다.

우선, 축제 안전매뉴얼, 타 시도 우수사례 제공, 실무회의 개최, 안전관리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전 0시 축제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대전 0시 축제 안전관리계획은 7월 13일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사전검토, 보완을 마친 후 7월 21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개최 전날인 10일에는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구, 경찰,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합동 사전점검을 하는데, 이를 통해 분야별 현장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행사 개최 전까지 개선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행사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 등을 추적관리 한다.

TF는 총괄관리반, 상황감시반, 현장점검1반, 현장점검2반, 단속수사반으로 구성된다.

총괄관리반은 축제 안전관리 TF 운영, 상황감시반은 선별관제 시스템 운영 등 축제장 실시간 감시, 현장점검 1반은 동구지역 현장점검, 현장점검 2

반은 중구지역 현장점검, 단속수사반은 행사장 불법 행위 중점단속에 집중한다.

실시간 상황공유와 신속대응을 위해 대전 관련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PS-LTE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총 37개를 각 상황실과 안전관리자 등에게 배부한다.

특히, 이번 대전 0시 축제에서는 인파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선별관제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

인공지능 활용 선별관제 시스템은 CCTV를 활용해 축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구역별 혼잡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위험도를 분류해 유사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시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하며, 축제기간 한시적으로 연계 감시망을 구축해 안전상황실에서도 동시 감시가 가능하다.

가벼운 운영질환자는 질병관리청 응급조치기준에 따라 축제장 내외부에 위치한 운영질환자 센터 30개소로 이동 조치한다.

운영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체계로 전환해 보건소에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소 운영을 지원한다.

김원호/기자

시흥시, 태풍 카눈 대비 ‘총력’ 8일 오후 회의, 대비상황 점검

시흥시가 8일 오후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시는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영상으로 참관하고,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각 국장,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권에는 이 기간 80~120mm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날 중대본 회의와 함께 자체 회의를 통해 부서별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시는 본격적인 특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각 동에 긴급 상황인력을 투입한다. 또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할 계획이다.

태풍이 한반도에 북상하기 전 취약지역과 시설 긴급점검에도 돌입했다. 공사현장과 옥외광고물, 농축산시설 등 각종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지하차도나 반지하 주택 공동주택지하주차장 등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의 태풍 대비 상황을 꼼꼼히 살핀다.

급박한 상황 발생시 지하차도 내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자율방재단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오이도 방조제에는 단



속을 강화해 강풍에 의한 행락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숙거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강한 돌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un #육지인의섬 #뽕봉다리 #트레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공중도시 예천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임종식 경북교육감, 태풍피해 대비 긴급 점검 지시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산시청과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 체결

학교 공사현장과 최근 피해지역 집중 점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도내 전 학교(기관)에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올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첫 태풍이며, 최근 장마로 인해 피해 학교들이 발생한 만큼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학교(기관)의 공사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폭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기관)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공사 현장 조치 사항은 ▲강풍에 대

비한 각종 가설물, 안전 표지판, 적재물 등의 위험요인 점검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조치 ▲자재 및 가설재 고정 및 안전한 장소 이동 ▲기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작업 연기 ▲비탈면 붕괴 대책 강구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리 등이다.

학교의 조치 사항은 ▲지붕 및 옥상 등의 적재물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조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조그마라도 있는 주변 시설은 가급적 사용 금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점검 및 청소 철저 ▲터파기된 공사장 주변 접근 금지 ▲저지대 주변 도로의 경우 침수에 따른 감전 우려로 접근 및 횡단금지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든 물론 향후 시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추진 임종식 교육감, “경산시와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9일(수),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와 경산지역 학교복합시설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시대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더불어 조현일 경산시장과 윤두현 국회의원,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박채아 도의원, 이철식 도의원, 차주식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부지 제공 및 학생 이용 우선권 ▲소유권 관련 사항 ▲사업비 분담 관련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산에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폐교인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북카페, 놀볼교실, 한국어교육센터, 메이커교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생존수영, 방과후교육 등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경산시청은 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 협의를 이어나가 학교복합시설 공모 신청, 각종 심의와 설계를 거쳐 2026년 복합시설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산시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경산시와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10일 '2023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규 교육과정 미이수자들에게 학력 인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0일 '2023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2회 검정고시는 초졸 80명, 중졸 190명, 고졸 986명 등 총1,256명이 응시한다. 시험장소는 전남공고(고졸)와 광주전자공고(고졸), 봉산중(초·중졸), 광주소년원, 광주교도소 등 총 5곳에서 치러진다. 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비상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시험응시자는 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에 있는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험표와 신분

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중·고졸), 흑색 볼펜(초졸) 등을 지참해 시험 당일 8시20분까지 시험장 현관 출입구에 도착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확진 및 자가격리자 중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9일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을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했다. 신청자에게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등 응시를 최대한 도울 예정이다.

합격자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기자

부산교육청, 태풍'카눈'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9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9일 오전 10시 하운수 교육감 주재로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태풍의 진로방향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시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재난대응상황실을 가동한다.

이번 여름방학 중 교육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학생을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비누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미술도 하며, 평소 접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재밌고 즐거웠다고 여름방학 중 교육활동에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포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31일(월) ~ 8월11일(금) 2주간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교직원 및 봉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손잡이, 책상, 의자 등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과 물건 모두 소독을 하며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리드미 음악, 미술교실, 방송댄스, 비누아트, 미술



공에 5개 과정으로 평소에 접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상하여 학

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특수교육학부 교육봉사자 11명과 자원봉사자 4명을 교대로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더욱 알차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여름방학 중 교육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학생을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비누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미술도 하며, 평소 접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재밌고 즐거웠다고 여름방학 중 교육활동에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제30회 영등포구구민상' 영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8.22.까지 구민상 후보자 추천받아...지역 발전 기여한 구민, 단체 대상



영등포구가 구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30회 영등포구 구민상' 후보자를 8월 22일까지 추천받는다.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영등포구 구민상은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헌신·봉사한 구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38만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자 영등포 구민의 날 보다 2년 먼저 시행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영등포 대표 표창이다.

구는 영등포구 구민상 시상식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의 공적과 선행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구민상은 ▲장한아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체육상 ▲문화예술상 ▲교육상 ▲환경상 ▲지역공헌상 ▲복지상 등 9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선정된다.

추천 대상은 시상일 기준 3년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다. 각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자 영등포 발전에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하며, 3년 내에 구민상 수상 경력이 없어야 한다.

각 부문별 관계 기관장, 단체장 및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8월 22일까지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는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며, 시상식은 9월 중순 '제28회 영등포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9월 28일 개최된 '제29회 영등포구 구민상' 시상식에서는 총 16명의 구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외경 자치행정과장은 "영등포구 구민상 시상식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분야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몰심양면 애써주시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위기가구 발굴 채널 다양화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의 길' 제안!

지난 4월부터 위기가구 제보 카카오톡 채널 ▲'송파희망톡' 운영

송파구가 소외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로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송파희망톡'을 개설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SNS 채팅으로 간편하고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700여 명의 구민이 채널에 가입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도 홍보수단으로 전격 활용했다. 관내 124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고지서에 '송파희망톡' 채널과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다. 휴대폰카메라 조작 한 번이면 위기가구 제보나 도움 요청이 가능한 채팅방으로 손쉽게 연결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 24만 부에도 다양한 제보 방법을 홍보했다. '송파희망톡'뿐만 아니라 △복지상담센터와 △송파복지상담센터, △주민센터 방문도 안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송파희망톡'으로 주민센터와 상담한 마천1동 거주주민 A씨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고민하던 중 송파희망톡을 통해 손쉽게 주민센터

와 연결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구는 상담 후 72시간 내 긴급 지원이 가능한 복지상담센터 홍보를 위해 관내 병·의원, 약국 등 450여 곳에 안내판을 붙여 홍보 중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한 정신과 전문의가 우울증 상담 중 생활고를 겪는 환자를 발견하고 상담센터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라며 미담을 전했다.

그 밖에도 송파구는 통장단 복지도 우미, 우리동네돌봄단, 행복올타리 등 총 6천여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안부확인서비스와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위기징후를 놓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구정을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흥수/기자

잼버리 참가 대만 청소년 400명 성북구에 왔어요!

8일 대만 청소년 400명 성북구 고려대학교 기숙사 입소

새만금 잼버리 조기 퇴영 대만 청소년 400명이 서울 성북구에서 남은 일정을 이어간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협력해 고려대학교 기숙사를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 구가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대만 참가 청소년에게 잼버리 조기 퇴영의 아쉬움 대신 대한민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8일 오후 16시 이후 순차적으로 입소한 대만 참가 청소년에게 고려대학교 구내식당을 통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오는 11일 예정인 K팝 콘서트 일정을 제외한 9일부터 10일까지 이들을 성북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구는 우선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성북 시티투어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옛돌박물관, 길상사, 최순우옛집, 수연산방 등 성북동의 명소를 둘러보며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관으로 손꼽히는 월곡동 오동숲속도서관도 방문해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휴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극장인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영화도

관람한다. ▲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소재한 도시 특성을 활용해 성북구 삼선동 소재 한성대학교도 방문한다. 한성대학교에서는 전통문화공연 관람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북동 선잠박물관에서 특별전 관람과 체험프로그램도 참여한다.

성북구는 새만금 아영지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았던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성북구와 고려대학교, 소방서, 경찰이 협력해 숙소 현장의 위생과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의 상주를 통해 운영질환 등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 도착하며 다소 피곤해 보였던 대만 참가 청소년들은 성북구 직원들이 대만어로 미리 연습한 "환영합니다" 외침과 함께 "성북구 하오(好)! 잼버리 하오(好)! 성북구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요" 현수막 앞에서 함박미소를 지었다.

쉬가오밍 양(17)은 "영국, 미국 친구들이 먼저 새만금 아영지 떠나 친해질 기회가 사라져 아쉬웠는데 서울 성북구에서 남은 일정을 보내게 되어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의 일정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잼버리 대회에 큰 기대를 하고 왔을 대만 청소년들이 조기 퇴영으로 인한 아쉬움 보다는 성북구에서 머무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이용 납부

- etax시스템(etax.seoul.go.kr) 접속
- 조회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 납부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서 전자납부번호 확인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전용계좌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새마을은행, 농협, 수협, 카카오페이, 케이뱅크, 지방세입
- 납부 방법: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 타은행 계좌이체 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본인 부담
- 지방세입계좌는 이체수수료 없음

ARS 이용 납부

ARS전화번호(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청은행민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 지원내용: 기초생활, 긴급지원, 복지서비스 등 복지상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송파복지상담콜 2147-2722 | 카카오톡 송파희망톡 채널 추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프라자

since 1993

봉화 한약우

익호초연자르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군

우리나라의 맛

봉화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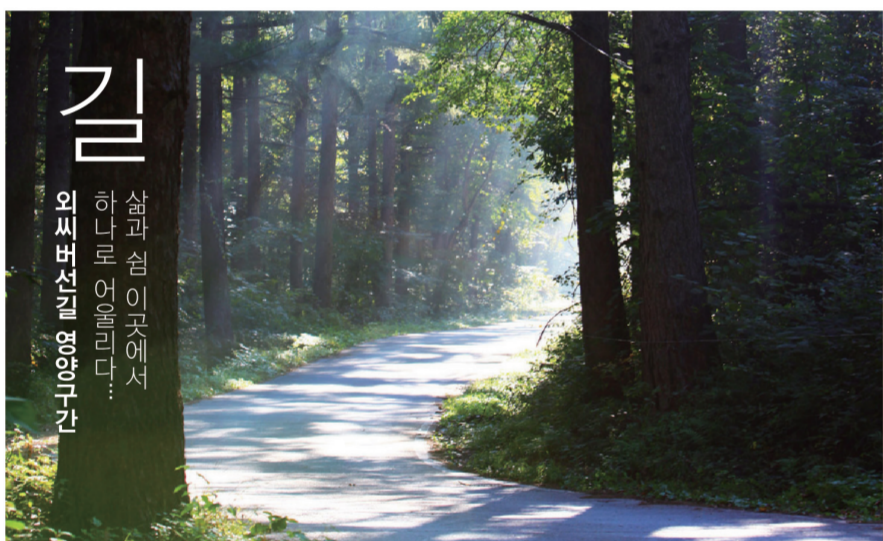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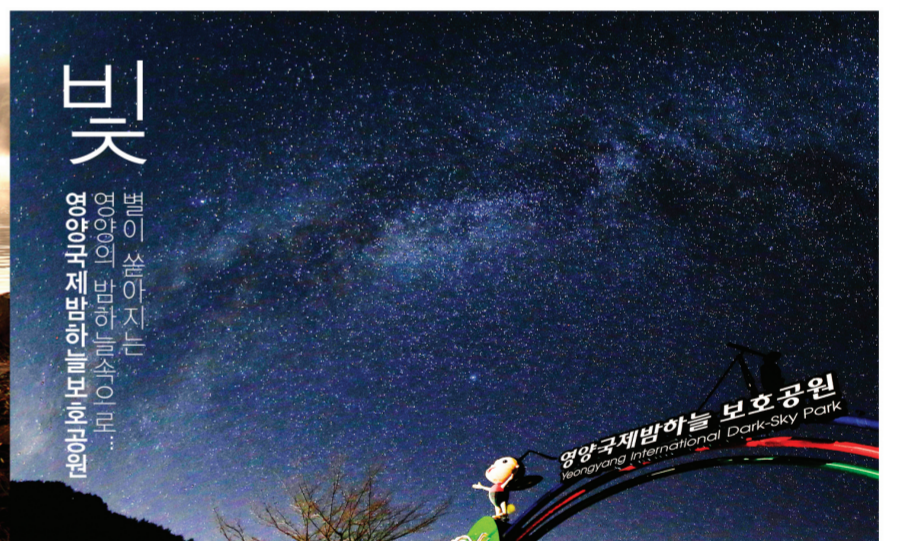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섯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름다듬어진다...
영양기원정원계곡나들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즐기면...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얼

시몬학의대가
서문포정원서평의정원...
영양서적지



맛

사백년들이어린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포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